

결혼 권하는 사회: 현대 중국의 결혼, 배우자 선택,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응철**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글 | 2. ‘백발맞선(白髮相親)’ |
| II. 변화하는 중국의 결혼 | IV. 결혼의 조건 |
| III. 결혼 권하는 사회 | V.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
| 1. 미디어를 통한 결혼 독려 | VI. 결론 |

| 논문요약 |

본 논문에서는 현대 중국사회의 결혼의 변화양상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혼이 산업화되고 상품화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결혼의 특성을 먼저 살펴본 후 현대 중국의 결혼 의례의 특성, 배우자 선택에서 고려하는 사항, 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고대 중국에서 결혼은 선조에 대한 제사와 종족의 보존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혼인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집안 어른들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1950년 혼인법의 제정을 통해 결혼은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제도화되었으나 동시에 상품화, 산업화의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개입과 정치적 판단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최근 중국은 국가와 미디어가 나서서 결혼을 독려한다.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개최되는 결혼 박람회, 대중문화 영역에서 결혼을 소재로 삼는 작품들의

* 본 연구는 2013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과제번호: 3000002068). 초고를 개선하도록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증가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심지어 ‘백발맞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프로필을 들고 나가 적절한 조건의 집안을 물색하여 자녀의 배우자를 찾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경제적 조건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중국의 결혼에 있어 이들이 보여주는 ‘속물성’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겨진 자’라는 의미에서 잉남(剩男), 잉녀(剩女)라고 불린다. 특히 고학력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한 여성을 일컫는 잉녀라는 개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여된다. 독신자는 위험한 존재, 문제가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이는 국가의 인구정책, 성비불균형, 도농간 불균형 성장 등 결혼을 방해하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은 무시한 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남겨진’ 것이 여성 자신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잉여, 결여 등의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현대 중국, 결혼, ‘잉녀’, 결여, 속물성

I. 들어가는 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자리에 J는 약속보다 한 시간 반 정도 늦게 나타났다.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이미 저녁을 먹고 있던 친구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어떻게 됐어?”라고 물었고 J는 목도리를 풀며 고개를 가로로 저었다.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서로 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쓸 데 없는 이야기만 한 시간 하고 헤어졌어. 그냥 여기 와서 저녁이나 먹을걸 그랬어.” J는 대답을 하며 이미 우리끼리 오랜 시간 먹고 있던 휘귀(火鍋) 국물을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지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서 먹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눈은 작고 안경을 썼어. 키는 나보다 작은 것 같아. 연봉은 40만 위안이 넘는다는데 그런 사람이 왜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한 건지 모르겠어.¹⁾ 차라리 짧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었으니 맥도날드에서 만난 게 더

다행일 수도 있겠다. 전에 소개 받은 사람은 월급이 세금 빼고 4000위안 정도라고 해서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

올해 서른 살 상하이 여성인 J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소개팅’을 하고 온 참이었다. 2014년 1월 연구자가 상하이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상하이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을 때의 일이다. 그녀를 기다리던 다른 친구들의 질문은 더 이상 없었고 J의 푸념 역시 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J의 소개팅 이야기는 위에 기록한 몇 마디의 대화로 간단하게 정리되었고 이후의 저녁식사 모임은 다른 때와 비슷하게 일상에 대한 이야기, 한국과 중국의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 곧 있을 춘절 휴가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이 모임에서 J는 가장 나이가 적고 G는 서른세 살로 가장 많다. 이날 만난 4명의 여성은 비슷한 또래로 모두 미혼이다. 소개팅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집에서 결혼을 재촉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G는 집에서 압박은 계속 있고 그것 때문에 가끔 소개팅에 나가는 하지만 ‘괜찮은 조건의 남자’는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집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괜찮은 조건의 남자’인데 이런 남자를 찾기 어렵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이날 만난 친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가족들이 결혼을 재촉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괜찮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

여러 사회에서 결혼은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위와 의견, 여러 차원의 사회적 담론들, 결혼 당사자와 그들 가족들의 애정/현실/미래에 대한 평가와 판단 등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과 그 가족)에 대한 애정과 호감이라는 기본적 전제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장이며 각자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결혼에 대한 상과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역할 등에 최대한 근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거기에 더해 국가의 정책과 법적 제도

1) 최근 상하이의 대졸 취업자 평균 월급은 약 4,000위안에서 5,000위안 정도이다. 이 수치는 평균이기 때문에 직업, 근속연한 등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가 개입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특정 사회의 결혼에 대한 논의는 결혼 의례의 절차와 그에 동원되는 상징들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결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이 글은 현대 중국 도시의 결혼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과 양상들을 기술하고 그것이 어떤 담론들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결혼은 결혼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혼의 과정과 의례의 구체적 양상이 사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특히 중국의 결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오기도 했지만 이와 함께 민족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경우는 도시에 거주하는 한족들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Friedman 2006; 李霞 2010; 馮雪紅 2013 등 참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으로의 결혼이주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포함한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결혼과 관련한 모든 양상을 검토하고 그것의 모든 변이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글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도시에 한정하여 현대 중국의 결혼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과 미디어 콘텐츠, 실제 결혼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중국 도시의 결혼 과정과 의례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의미들을 일종의 문화비평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중국 도시의 결혼에만 논의를 한정시키는 것은 연구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결혼의 ‘시장화된’ 특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라는 상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로 주요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II. 변화하는 중국의 결혼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한쪽 벽 앞에서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복도를 가득 채운, 자욱하고 매캐한 담배연기와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말쑥한 양복 차림의 신랑과, 약간은 과하다 싶은 정도의 화장을 한 신부는 하객들과의 기념촬영으로 바쁘다. 식당 입구에는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들(伴郎, 伴娘)이 서 있고 그 앞의 테이블에는 붉은 속지의 방명록이 펼쳐져 있다. 굵은 펜에서 나오는 금색 잉크는 도착한 순서에 따라 하객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긴다. 식당 안에는 T자 형 무대가 있고 그 주위에 20여 개의 8인용 식사 테이블이 배열되어 있다. 앉아야 할 테이블은 이미 식당 입구에서 확인했지만 테이블마다에도 하객들의 이름이 손글씨로 써있다. 흰색 테이블보 위에 놓인 ‘중화(中華)’ 담배 두 갑과 쌍희(囍)가 새겨진 붉은색 성냥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이하 생략)

이는 연구자가 2012년 겨울 상하이(上海)에서 있었던 한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에서 보았던 대부분의 결혼식들은 위의 묘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이 시작되면 ‘저명인사’의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랑은 한쪽 무릎을 꿇은 ‘전형적 자세’로 신부에게 프러포즈를 한다. 신랑과 신부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 식당 앞 대형화면에서는 이 의례를 주관하는 업체[婚慶公司]의 로고를 시작으로 신랑신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보여준다. 업체에서 파견한 전문 사회자는 하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퀴즈와 게임을 진행하고 상품을 나눠준다. 이후 신랑과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테이블마다 다니며 덕담을 듣고 하객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신다. 아침 일찍 신부집에서부터 시작된 의례과정은 이렇게 일단락된다.

많은 하객을 초대하고 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원만하게’ 그리고 ‘낭만적’으로 결혼예식을 치르는 것이 현대 도시의 커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론 하객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현대 중국 도시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결혼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중국

이외의 많은 사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전의 결혼 역시 성대한 이벤트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1935년 10월 10일 상하이의 쑤저우강(蘇州河)에는 작은 목선 백여 척이 열을 지어 강 위에 길이 60m, 폭 12m 정도의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는 당시 ‘선박왕’이라 불렸던 가오다창(高大強)의 아들 결혼식이었다(孫孟英 2010, 2-3). 30년대의 한 전기기구 상점 사장 아들의 결혼식의 경우에는 사흘 동안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 매일 점심, 저녁마다 50개 테이블씩 사흘 동안 300개의 테이블을 차려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 비용은 현재 돈으로 약 30만 위안(한국 돈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이 들었고 결국 결혼식 때문에 10만 위안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이 결혼의 경우 신랑의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야 체면[面子]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물론 모두가 항상 이렇게 호화롭게 혼례를 치루는 것은 아니었다. 1946년의 한 사례에서는 찻집을 하나 빌려 3개 테이블에 차와 술, 간단한 덴신(點心)만으로 결혼식을 하기도 했다(孫孟英 2010, 54-55; 64).

결혼의례의 형식과 내용, 배우자의 선택 등은 시대에 따라 어떤 측면은 덜 변화하고 어떤 측면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 변화의 양상들을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별개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야 할 만큼 방대한 작업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변화의 큰 흐름만을 대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대략적이기는 하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고려가 현대 중국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결혼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에서 결혼은 선조에 대한 제사와 종족의 보존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혼인 당사자의 의견보다 집안 ‘어른’들의 선택과 결정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²⁾ 그러나 상하이의 경우 근대화 이후 이와 같은 목적이 약화되고 보다 서구적이고 덜 엄격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의 혼례가 이루어지는

2) 중국 고대 결혼의 양상에 대한 연구 저작들은 꽤 많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는 결혼 양상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 과도한 중국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 편향된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민걸(2012)은 기본적으로 중국 사회주의 혁명이 고대의 봉건적 관념을 깨뜨렸고 결혼 제도 역시 봉건적 특성을 제거하고 현대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진화주의적 관점을 전제로 하여 설명할 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논증하지 않는다.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남경조약(南京條約) 이후 조계가 형성되고 외국인들과 타지역의 중국인들이 유입되면서 혼인풍습이 크게 변화하였다. 무엇보다 부모가 결정하는 혼인 대신 자유혼이 등장하였고 특정 매체들에서는 중국 전통 결혼 방식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胡申生·鄧偉志 2007, 37-38).³⁾

중국인들의 다른 삶의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있어 무엇보다 큰 변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나타난 변화이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후에는 국가가 결혼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고(Croll 1981)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 전역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Friedman 2006 참고). 국가가 주도하는 변화는 1950년 혼인법의 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혼인법의 제정은 종족 연장자들의 결정을 통해 결혼이 성립되었던 기존의 ‘봉건적 결혼’으로부터의 탈피를 강조하고 결혼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라 규정하였지만 법의 제정 자체가 결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Davis 2014, 552). 혼인법을 통해 국가는 여성의 권한과 권리도 확립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여성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물론 혼인법의 등장이 곧바로 혼인 결정의 자유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혼인에 대한 부모들의 강한 권한이라는 전통적인 관습을 상당 부분 존중하고 따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세대들은 자신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⁴⁾

결혼 상대는 정치적 판단과 고려에 따라 위계화되었다. 문화혁명 시절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초상과 양가 부모에게 차례로 인사하고 신혼부부가 서로 경례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청첩장에는 마오쩌둥 어록의 발췌문

3) 이 시기 상하이에서 자유혼이 등장하면서 부모나 중매장의 역할이 축소되었음은 다음과 같은 민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명화된 여성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자신의 배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네. 중매장에게 술을 대접하지 않아도 되고 비밀은 부모와 상의하지 않아도 그만이지. 복잡한 예식 없이 증서 한 장만으로도 결혼이 이루어진다네(文明女子進學堂, 自由擇配有情郎. 不用媒人排酒缸, 秘密不向父母商. 三茶六禮一掃光, 一張證書百年好合做全堂)”(陳伯海 2001, 351-371).

4) 당시에 다음과 같은 노래도 회자되었다고 한다: “결혼의 자유로 인해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졌네. 새 혼인법이 등장했으니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네”(Croll 1981, 33).

이 4/5를 차지하고 결혼식 일정과 장소는 아래에 작게 써 있는 수준이었는데(쉬산빈 2014, 298-300) 이런 것을 통해 당시 결혼과 국가의 관계를 볼 수 있다.⁵⁾ 문화혁명 시기 상하이에서는 ‘홍오류(紅五類)’(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상인, 학생, 혁명군인 등을 지칭) 집안 출신이 좋은 신랑감으로 여겨졌고 농촌에서는 가난한 농민 집안 출신이 좋은 배우자감으로 여겨졌다. 또한 70-80년대에는 소위 ‘지식분자’가 좋은 대우를 받았다. 반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되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배우자로 여겨지게 되었다(胡申生·鄧偉志 2007, 122).

이전까지의 과도한 결혼 의례는 이 시기에 크게 간소화되었다. 중국에서 두 사람(과 그들이 속한 두 가족)의 사회적 결합인 결혼은 특정한 의례를 통해 시각화되고 사회적으로 표현되어 경험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정교하게,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결혼 의례는 혼인법 등장 후 간소화되어야만 했다. 심지어 혼인법 등장 이후 결혼당사자의 행정적인 등록만으로도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결혼 의례에 ‘과도한 부조’를 주고받는 것 역시 금지되었다. 농촌에서는 홍백사이사회(紅白事理事會) 등을 통해 과도한 의례를 규제하기도 했고 부조도 간단히 하도록 ‘지도’하였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사적 경제영역은 혁명의 적으로 간주되었고 경조사에서의 부조는 바로 사적 예물경제의 극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부조의 주고받음은 개인적 관계를 강화하고 확인하는 일이므로 집체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김광익 2000, 197-199; 267-268). 이처럼 결혼 의례는 국가 주도의 법제도와 정치적 권위가 개입하는 영역이 되었다(Croll 1981, 108). 이는 결혼에 관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주체가 결혼 당사자와 친족집단에서 국가의 행정기구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결혼 과정과 의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이전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게 되었고 결혼 상대 선택, 성에 대한 관념 등은 다시 한 번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성에 대한 관념과 태도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이 되었고(Farrer 2002 참고)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5) 영화 <인생(活着)>(장이머우(張藝謀) 감독, 1994, 125min)에서도 결혼 의례가 국가 또는 당시의 정치적 권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고대사회의 엄격한 결혼 규정과 집안의 압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시장경제의 도입에 힘입어 현대 중국의 결혼의례는 관련 업체들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표준화되고 상품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다른 여러 사회들에서 유사하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정이 ‘로맨스의 상품화’를 만들어내었다는 예바 일루즈(2014)의 지적은 현대 중국의 결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대 중국사회의 결혼이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과도한 상품화, 국가 개입의 약화, 전통적 결혼 과정이나 의례로부터의 탈피 등으로만 특징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른 사회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현대 중국의 결혼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몇 가지 독특한 현상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 중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Ⅲ. 결혼 권하는 사회

1. 미디어를 통한 결혼 독려

결혼중개업체인 바이허(百合網, baihe.com)는 2014년 2월 춘절을 맞아 만든 텔레비전 광고 때문에 한동안 네티즌들로부터의 비난으로 큰 곤혹을 치렀다. 광고에서는 손녀가 고향집에 올 때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결혼은 했니?”라고 묻는다. 손녀가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모를 쓰고 와도, 취업을 하고 와도 같은 질문을 하고 병상에 누워서도 손녀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⁶⁾ 결국 손녀는 고민끝에 결혼을 결심한다. “결혼했어요. 사랑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라는 카피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입고 밝게 웃는 손녀의 모습이 광고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광고에 대해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

6) 학사모는 미디어가 규정한 ‘잉녀(剩女)’, 즉 고학력이면서 나이가 많은 미혼 여성을 상징하는 사물이다. 잉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의 문제이지 가족을 위한 희생은 아니다”, “여성의 학업적인 성취는 무시하고 결혼 여부로만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등의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sina.com 웨이보(微博)에 ‘바이허에 저항하는 모임(萬人抵制百合網)’이 만들어져 약 16만 명 정도가 논쟁에 참여하였다. 논쟁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이허의 광고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일부는 명절 때마다 결혼여부를 묻는 물음에 곤혹스러웠다는 점도 토로하였다.

바이허의 광고를 둘러싼 논쟁은 현대 중국사회에서 결혼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최근 중국에서는 결혼을 권장하는 이벤트와 캠페인, 미디어의 결혼 주선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결혼을 독려하는 사례도 있다.⁷⁾ 상하이, 베이징 등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매년마다 결혼박람회(婚博會)를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텔레비전 채널에서 남녀 맞선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전후로 소개팅 프로그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상하이 동방위성텔레비전(東方衛視)의 유명 프로그램인 <토요일에 만나요(相約星期六)>는 1998년부터 방송을 시작하였고 2006년 프로그램 개편 이후 평균 9.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00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200쌍 정도가 결혼에 성공하였다. 여성 출연자들은 22-25세 정도, 남성들은 24-30세 정도의 사무직, 고학력자들 위주의 프로그램이다(袁念琪 2009, 49-53). 2010년 1월부터 방송된 장쑤위성텔레비전(江蘇衛視)의 <진심이 아니면 방해 금물(非誠勿擾)>과 같은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⁸⁾

7) 국가에 의한 결혼 장려의 사례로는 2008년 베이촨(北川)지진 후 정부가 배우자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권장하여 8개월 후에 614명이 재혼한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2013년 6월 우한(武漢)에서는 아이가 있는 싱글맘에게 벌금 약 82,000 위안을 부과하려는 정책을 세웠다가 사회적 비판 때문에 철회한 바 있다(Fincher 2014, 23-24).

8) 이외에도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다수 방송되고 있다. 후난위성텔레비전(湖南衛視)의 <我們約會吧!>, 동방위성텔레비전의 <誰能百裏逃一>, 저장위성텔레비전(浙江衛視)의 <愛情連連看>, 난징텔레비전(南京電視台)의 <中國好音緣>, 하이룽강텔레비전(黑龍江電視台)의 <大城小愛>, 허페이텔레비전(合肥電視台)의 <全城熱戀>, 타이위안텔레비전(太原電視台)의 <我的選擇> 등의 프로그램을 언급할 수

대중문화의 다른 영역에서도 결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쉽게,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던 때는 없었지만 현대 중국의 대중문화 영역에서 결혼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은 매우 쉽게,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의 과정과 결혼 이후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다루는 대중소설들(예를 들어 『AA制婚姻』, 『裸婚時代』, 『馬文的戰爭』, 『婚姻奴』 등)과 영화 및 드라마들(예를 들어 <我的經濟適用男>, <丈母娘來了>, <蜗居> 등의 드라마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 포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디어가 현실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거나, 현실이 미디어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분명 아니므로 미디어와 현실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큰 오류겠지만, 최소한 다양한 대중미디어에서 결혼이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것이 현대 중국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 ‘백발맞선(白髮相親)’

최근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소위 ‘백발맞선(白髮相親)’이다. 상하이 인민광장을 포함하여 일부 도시의 광장 한켠에는 자녀들의 프로필을 들고 나와 집안의 형편과 조건이 적합한 상대를 찾는 부모들이 모이는 ‘맞선공터[相親角]’가 있다.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자녀의 배우자를 찾는 것인데 광장의 ‘맞선공터’에 나오는 부모들 중에는 자녀의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최근의 ‘결혼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나오는 경우도 있다(袁念琪 2009, 63-66).

백발맞선은 대략적으로 遠望, 近觀, 詳議, 網聊, 面談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孫沛東 2012) 이를 풀어 이야기하면 遠望은 말 그대로

있다. 또한 라디오에서도 유사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으며 baihe.com을 포함하여 진아이(珍愛網, zhenai.com) 등 결혼상대 소개 사이트도 매우 많다. 한편, 소개팅 프로그램의 인기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커플을 이룬 성공담의 이면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이미 참가신청 단계에서 걸러낸다는 소문과 “프로그램에서 커플이 되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커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실에서 그럴 가능성 없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에도 나가기 어렵다.”는 비아냥도 존재한다.

멀리에서 바라보기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맞선공터에 나온 부모들은 여러 ‘후보’들의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식에게 적합한 상대가 누구인지 모색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조건’만이 아니라 맞선공터에 자식의 프로필을 가지고 나온 부모들을 통해 그 자식을 유추한다는 사실이다. 즉 부모가 괜찮으면 자식도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표현되는 것인데 이는 집안을 통해 자식의 됴됨이를 보는 전통적 관념과 크게 닮아 있다. 그 다음 ‘近觀’과 ‘詳議’는 각각 ‘가까이에서 관찰하기’와 (부모끼리의) ‘의사 타진’이다. 적합한 조건의 상대를 찾아 다양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어느 정도 만남과 교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식들의 연락처를 교환한다. 연락처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중국의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QQ나 웨이신(We Chat, 微信) ID도 포함된다. 부모가 맞선공터에 가는 것, 그곳에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을 그들의 자녀인 결혼 당사자(대상자)들이 큰 이견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에 대해 큰 반감이 없는 경우 혼인 당사자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서로를 ‘탐색’하는데 이것이 網聊이고 이 과정에서 호감이 가거나 상대가 적합한 대상으로 여겨지면 실제 만남인 面談으로 이어진다. QQ나 웨이신 등을 이용한 채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하게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아무 정보 없이 만났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과 위험을 최소화한다.⁹⁾

백발맞선의 성행은 부모들이 직접 나서 자녀들의 결혼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미디어의 사례들에서 본 것처럼 결혼이 현대 중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행위라는 사실과, 결혼이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쟁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백발맞선이라는 현상은, 혼인 당사자들의 감정적 끌림에 이은 만남보다 부모에 의한 심사(screening)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9) 인터넷을 통한 상호 정보의 교환은 상대에 대한 감정적 끌림이라는 고전적 사랑의 전제를 폐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감정적 이끌림에 선행시킨다. 또한 상호 간의 감정적 끌림 이전에 “성격은 부드럽고(溫柔) 성격은 활발(活潑)하며 얼굴은 달걀형에 표준적 키” 등의 표준화된 어휘목록에 기반하여 자신과 상대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를 미리 잘 알아본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표준화된 몇 가지 유형 중 하나로만 귀속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루즈(2010)의 3장을 참고할 것.

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된다. 또한 상대 부모들을 통해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애에 의한 결혼보다 전통사회에서의 ‘두 집안 사이의 결연’이라는 특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혼인 상대의 ‘조건’을 더욱 고려하고 집안끼리 잘 맞는가[門當戶對]를 더욱 신경쓰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과정에는 노년에 대한 사회복지가 취약해져버린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노후에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역시 개입한다.

부모들이 나서 ‘조건이 맞는’ 집안의 사위 혹은 며느리를 물색하는 백발 맞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부모들의 영향과 관여의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 미혼 남녀들 중 70% 정도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고 80% 정도는 부모의 관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부모나 친척의 소개로 만나거나 부모의 승인에 기인한 결혼이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개입을 당연하게 여기고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점에서 어떤 사람은 현재를 “新包辦時代”라 부르기도 한다.¹⁰⁾ 부모의 관여가 커지고 자녀의 결혼 상대를 부모의 입장과 판단에 입각해 결정하려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전통사회로의 완전한 회귀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 대개 개인과 개인의 결정만으로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과 다른 가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결혼 당사자의 부모들 역시 결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주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자녀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결혼을 ‘당사자 본인’에게만 맡겨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부모들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아주 이상하고 과도한 일로 여겨지는 수준도 아니라는 판단의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가 반중매쟁이가 되어야 딸을 살린다.”는 한국속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자녀

10) “新包辦婚姻調查: 近半80後男女靠父母親友介紹”(2012년 11월 28일), <http://goo.gl/gfw8pd>. (2013년 4월 8일 검색) 이 기사에 따르면 2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 상대를 만난 경로는 자유연애 39%, 친척과 친구 소개 24%, 부모의 소개 24%였다.

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일종의 ‘사회적 조급함’이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혼은 깊은 애정과 호감의 결과이자 그것의 표현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이 애정과 호감이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기기를 기다리지 못한다. 국가 기구들, 각종 미디어들이 나서서 결혼을 독려하고 권장한다. 여기에 부모들도 가세한 형국이다. 결혼에 대한 독려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혼이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강박의 다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

IV. 결혼의 조건

결혼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간이 거쳐야 할 중요한 통과 의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허용하는 수준의 사회문화적 조건 안에서 특별하고 ‘낭만적’으로 치르기를 소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사회주의적 원칙이 득세하던 시절을 제외한다면 중국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안 그랬던 것도 아니지만, 현대 중국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과 결혼의례에서의 ‘보여주기’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20대, 3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며 가정, 생활, 소비, 집꾸미기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liba.com)는 첫 화면에서 인테리어, 자재 및 가구, 결혼, 집 등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업체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들 중 결혼 관련 게시판에는 웨딩 사진과 메이크업, 식당 선정, 결혼 의례 주관업체 등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곳을 이용했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올라온다. 예를 들면 결혼식장 장식, 현장의 꽃장식,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진행, 신부화장, 웨딩카(이는 다시 신랑과 신부가 타는 차량과 친구들, 들

러리들이 타는 수행차량으로 세분), 신부 옷과 드레스, 신랑 옷, 스튜디오 촬영 등에 대해 이용한 업체, 계약 방식, 대략적인 금액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 질문을 하거나 좋은 정보를 올려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한다. 또한 결혼 상대의 '경제적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집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밝히고 있는 포스팅도 자주 올라온다. 대개 '부러움을 살 만한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갖는 포스팅은 웨딩 사진에 대한 것으로 독특한 웨딩사진(예를 들면 수조안에서 촬영한 것)을 남기는 것이 낭만적인 것으로 여겨진다.¹¹⁾

돈이 있어도 결혼을 위한 집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신랑측에서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측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마련하는데 집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신랑과 신랑의 부모가 집값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신부측에서도 일부 지원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구한 후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해서 집을 꾸며야 한다. 연구자가 잘 아는 상하이의 한 신혼부부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한 후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업체는 선정하되 자신들이 직접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감독해야만 했다고 했다. 평일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을 구입하고 나서도 인테리어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 결혼에 성공하면 그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 된다.¹²⁾

11) 결혼식에서 찍는 사진은 혼인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도시적 경험을 시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홍콩 등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송도영 2004, 156-161; Cheung 2006; Ma 2006). 최근 중국에서는 다른 도시나 교외 지역으로 나가 웨딩 사진을 찍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이며 한국이나 유럽으로 '촬영 여행'을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liba.com 사이트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결혼 사진 스튜디오들의 일부는 '한국' 또는 '서울'을 업체명에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가 2012년 1월, 상하이 사람들이 결혼사진 촬영으로 많이 찾는 쑤저우(蘇州)에 갔을 때 쑤저우에서 3월 1일부터 개최되는 결혼박람회 안내 부스 옆에는 '서울 서울(首爾 首爾)'이라는 이름의 스튜디오 역시 홍보부스를 마련해 안내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었다.

12) 결혼을 앞둔 부부가 집을 준비하고 꾸미는 것 역시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의 도시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집을 장만하는 것이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라면 농촌사회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보람과 개인의 존재를

결혼의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은 북중국 농촌의 신부대와 관련한 Yan Yunxiang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Yan 2005).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보내는 예물과 돈을 彩禮라고 하는데 50년대에는 禮錢, 60-70년대에는 ‘물건 사는 돈(買東西錢)’이라 불렀다. 90년대 이후에는 오로지 현금으로 주는데 신부가 신랑측에 매우 강하게 이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것은 신혼부부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족의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결혼할 때 신부대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개성(個性)’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고학력이거나 도시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을수록 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마을의 젊은 이들은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이기적 태도를 개성(個性)이었다거나 현대적(現代的)이라거나 아니면 독립(獨立)과 자유(自由)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당화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언급한 것과 같이 “(결혼을 통해)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바우만 2003, 67). 확정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사랑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그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용기는 마음먹는 것에만 달려 있지 않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용기를 좀 더 강화하고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갑옷이 필요하고 그 갑옷은 ‘경제적 요소’를 통해 덧대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 중국에서 결혼은

확인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경험이자 증거”가 된다(김광익 2010, 141). 중국의 경우 결혼을 하기 전에 집을 마련하고 수리를 마친 후에야 입주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집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집에 살면서 차차 개량해 간다. 자바 문화에서 집은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전통 자바 사회에서 개인은 가정을 꾸림으로써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기반을 얻는데 이때 부모의 거주지로부터 독립된 공간과 부역이 있어야 독립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부부는 일단 독립된 처소를 마련하여 독립한 후 경제적 형편에 맞춰 조금씩 변형해 간다(김형준 2012, 66-67).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집값과 차량 구입비를 제외하고도 상하이의 결혼비용은 약 13만 위안이었다. 집안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하면 18.713만 위안이다. 2009년 『생활주간』 조사의 응답자 445명 중 416명이 상하이의 결혼 비용이 비싸다고 했으며 그중 72명은 “결혼할 능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2005년 상하이 시민 1인당 평균 수입이 18,645위안임을 감안하면 5-6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집도 장만하고 결혼비용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蘇言·閔唯 2010, 134). 이런 현실 때문에 결혼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喻丹美 2012).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한 “부자 소개팅 파티(富豪相親派對)”가 간혹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는데 2010년의 경우 이 파티에 참가하기 위한 최소 입장료가 30만 위안이었다고 한다(蘇言·閔唯 2010, 122). 인터넷에 떠도는, “50년대에는 간부에게 시집가고 60년대에는 군인에게 시집가고 70년대에는 노동자에게 시집가고 80년대에는 대학생에게 시집가고 90년대에는 돈 있는 사람에게 시집간다.”라는 표현이나 “괜찮은 여자는 사장과 결혼한다(好女嫁老板).” 같은 말, 2010년 1월 한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온 여성 출연자가 했다는 “자전거 뒤에 앉아 웃는 것보다 BMW 안에서 우는 것이 낫다(我寧願坐在寶馬裏哭, 不願坐在自行車上笑).”는 등의 말은 현대 중국 사회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연구자가 상하이에서 만난 Z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들려 주었다. 아직 미혼인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결혼식 과정에 약 30-60만 위안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Z가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자가 집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가전제품, 가구 등 준비하지만 집 준비에 비하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니어서 자신은 집 있는 사람만 찾으면 결혼 준비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경제적 조건을 가장 우위에 놓고 집 가진 신랑감을 찾고 호화롭고 화려한 결혼식을 추구하는 여성들에 대해 (앞서 소개한 liba.com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점을 이유로) 일각에서는 ‘리바녀(籬笆女)’라고 부르며 천박하고 속물적인 존재로 여긴다. 즉 ‘리바녀’는 “남성들에게 맹목적으로 높은 요구를 제시하는 여성”을 이르는 용어로 이들이 찾는 배우

자는 “집은 가지고 있으나 부채는 없고, 상하이 변호관을 가진 차가 있으며 월급은 만 위안 이상,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蘇言·閔唯 2010, 127). 다시 말해 리바녀들은 안정된 경제적 상황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결혼 후에는 집이나 은행이자에 대한 부담, 시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기를 바라는 부류를 일컫는다.

이미 몇 연구들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속물성’을 자신의 것만을 챙기는, 그래서 비난받아야 할 특성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사회적 불안의 징후이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엄기호 2010, 67; 조문영 2012). 그리고 속물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전시의 대상이 된다(김홍중 2009, 59). 물론 어떤 점에서 속물성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된 것은 살아가는 문제를 공동체와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개인의 능력과 선택의 문제로 귀결시켜 버린, 사회의 책임회피에 대한 수사(修辭)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안정을 무엇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시도를 개인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수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중국에서 그것이 어떤 수사로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만들어낸 결혼과 관련한 현실적 상황은 ‘그 정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만들어낸다. 또한 속물성에 포섭되지 않은 자들을 다른 범주에 귀속시키는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을 타자화함으로써 자신들을 정당화한다.

현대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혹은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 자신의 일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거두는 것이 먼저여서 라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늦춘다. 이들이 위에서 이야기한 속물성에 반대해서 결혼을 늦추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담론의 과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사회적 압력은 그것으로부터 배제/소외되는 ‘이질적 타자’를 만들어낸다. 이는 ‘이질공포증’(엄기호 2014, 239)을 자극하여 이들을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로 규정한다.

V.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최근 독신자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미디어에서는 이들을 ‘남겨진 자’라는 의미에서 잉남(剩男, 찌꺼기 남자), 잉녀(剩女, 찌꺼기 여자)라는 용어로 부른다.¹³⁾ 이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계기로, 어디에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동안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산하 중국결혼 및 가정 연구회(中國婚姻家庭研究會)가 2010년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남자는 30세 이상, 여성은 27세 이상이 각각 잉남, 잉녀”라고 정의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남자의 90% 이상이 여성의 적정 결혼 연령을 27세 이전, 여성의 50% 정도가 남성의 경우 28-30세 사이가 적정 결혼 연령이라고 생각했다”는 통계가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미디어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잉남, 잉녀 중 특히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잉녀로 고학력, 고소득의 27세 이상 여성들을 지칭한다.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서 20대 후반의 여성들에게 더 이상 결혼을 늦추지 말라고 권유하며 강조하는 것은 일관적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독신의 도시 여성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만 쌓지 말고 눈을 낮추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하며 상대를 고를 때 너무 신중하게 고르지도 말라는 훈계의 의미가 이 용어 내포되어 있다. “남성은 서른이 되면 한 송이 꽃이 되지만 서른 넘긴 여성은 문드러진 찌꺼기일 뿐(男人三十一朵花 女人三十爛渣渣)”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학력, 고수입 미혼 여성들은 요구조건만 높고 ‘완벽한 남자를 기다리다가 늙어버린 노처녀’로 묘사된다.¹⁴⁾

13) 한국어에서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굳이 찾자면 노총각, 노처녀와 같은 단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노-’는 연령이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현대 중국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잉(剩)-’은 잔여물에 가까운 것으로 ‘버려야 할 것’ 혹은 ‘처분해야 할 것’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 이 글에서는 ‘찌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하에서는 독음을 사용하여 잉남, 잉녀로 표기할 것이다.

14)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두부찌꺼기(豆腐渣)’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그런데 잉녀/잉남이라는 용어는 끊임없이 문제적이기 때문에 “꽃은 늦게 피는 것이다, 시대가

미디어에서 잉녀를 문제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잉녀라는 낙인이 두려워 서둘러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남성을 찾으려는 신념 대신 가급적 빨리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고르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 Fincher는 잉녀들에 대한 책에서 여성들이 결혼하여 집을 사는 데 많은 돈을 보태지만 실제 집은 공동소유가 아니라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잉녀로 남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 이름으로 된 집에 돈을 대는 것을 용인하게 한다”고 하였다(2014, 57).

서구의 역사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독신자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독신이 순수하고 바람직한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는 금욕을 강조한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다(슈레더 2014, 169). 특히 여성 독신자는 독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이중의 희생자가 되었다. 노총각과 노처녀는 모두 은근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지만 20세기에 남성 독신자에게는 댄디, 자유연애 등 적극적인 이미지가 부여된 반면 여성독신자(노처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무미건조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블로뉴 2006). 이와 유사하게 현대 중국에서도 독신자, 특히 잉녀는 문제가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잉녀에 대한 비난의 배경에는 계획생육 정책 시행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아들 선호와 그로 인한 성비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 또한 많은 농촌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도 관련되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성장과도 관련된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고학력, 도시 여성들에게 잉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인구정책, 성비불균형, 도농 간 불균형 성장 등 사회구조적인 맥락은 무시한 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남겨진’ 것이 여성 자신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눈을 좁 낮추고 자신의 직업이나 수입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남자들을 보라고 지적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것이 바로 잉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본질이

바뀌어서 이런 표현은 너무 진부하다.” 등의 반론도 함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다. 이들에 대한 논의의 전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남아 있는 찌꺼기’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은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자 책무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된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자기 의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 타의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되고 호명된다. 결혼의 사회적 가치가 독신의 사회적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결혼의 사회적 가치에서 ‘경제적 안정’과 ‘과시’를 우위에 두는 것이 잉남, 잉녀라는 표현의 이면에 숨어 있다. 중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도 독신은 일종의 불만의 상태(state of frustration), 또는 부족/결여의 상태(state of deprivation)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적절한 보상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여겨져 왔다(Li et.al. 2010, 679). 또한 독신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관련된다(安治民 2011). 즉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결여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결혼의 전제라고 여겨지는 경제력, 매력 등을 포함한 상품성을 결여한 존재라고 규정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 능력의 결여, 여성에게는 남성의 결여가 중요하게 대두된다.¹⁵⁾ 결여를 채우는 과정 혹은 그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은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드러낸다.

결여의 개념은 잉여, 즉 남아 있음의 문제와 대응한다. 남아 있음은 필요로부터 밀려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여는 필요하나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결여와 잉여는 유사한 방식으로, 그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드러낸다. 이를 한국사회의 ‘잉여’라는 개념과 연결시켜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잉여의 개

15) 결혼, 독신 등의 문제를 결여의 배제와 비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여를 채우려는 시도는 모든 사회가 다 갖고 있으며 결여는 그대로 놔두기 어렵다. 다만 무엇을 결여로 볼 것인가, 결여를 채우려는 욕망, 방법, 태도 등과 결여를 채우는 논리는 사회에 따라,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글에서 이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중국에서는 결여를 채우는 태도와 논리에서 상품의 소비와 ‘보여주기’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여 꾸미고 결혼 의례에는 다양한 ‘불거리’ 요소들이 강조된다. 또한 11월 11일 독신자의 날(光棍節)에는 쇼핑을 통해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한다. 현대 중국 젊은이들의 소비와 관련하여서는 이응철(2011)의 논의를 참고.

념이 “생산영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혹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포섭되지 못하는 주체들의 경제·문화적 조건, 즉 잉여적 삶”을 가리키는 반면(김상민 2013, 76) 중국은 결혼의 영역으로부터 밀려나 남겨진 존재가 잉여 혹은 잉남이다. 그런데 잉여란 ‘전체나 체계를 크고 작은 곤경에 빠뜨릴 때에야 비로소 인지’되며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효율성을 갖는가 따져보았을 때 비효율은 명확한 ‘약’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지적(최태섭 2013, 80-82)에서 볼 때 한국의 잉여는 경제활동에서 비생산적인 존재라면 중국의 잉여와 잉남은 경제적 활동과 개인적인 활동들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그 외의 영역, 즉 결혼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으로부터 배제된(혹은 그것을 결여한) 존재이며 자신들의 결여 상태를 채우려 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비난의 대상이자 국가적 차원의 계몽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VI. 결론

현대사회에서 결혼이 산업화되면서 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상품화’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현대 중국의 결혼의례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선택 과정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 미혼 남녀에 대해 미디어와 가족들이 나서서 결혼을 독려하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특정 행위가 사회적인 규범이 되어 압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미디어들에서 결혼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거의 최근까지 늦게 결혼하는 것[晚婚]을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의미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혼에 대한 강조는 적게 낳고[少生] 건강하게 키우는 것[優育]과 결부되어 인구정책의 한 측면으로 제기되었던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 결혼을 후대를 잇기 위한 전제로 보거나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가급적 결혼을 늦게 해야 한다

는 국가적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현재 미디어 등을 통해 강조되는, 결혼은 해야 하고 그것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건강한 사회 성원의 생산이라는 전제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결혼을 권장하는 국가와 도시 단위의 캠페인과 선전활동 증가(Fincher 2014, 28-31)는 ‘여성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 아이가 질병에 취약하다’는 기사들과 함께 결과적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연결된다.

또한 백발맞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결혼의 과정에서 배우자의 조건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통해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보호장치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진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책 중 하나로 결혼이 선택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모들은 노후에 기댈 곳이 자식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호혜적 관계를 자식과 유지하기를 바란다(Yan 2005 참고). 사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라면 독신이 차라리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부모에게 계속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차라리 감당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중국에서 그것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개인 자신의 경제적 안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결혼 관념 안에서 상호 연대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편안함까지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 상대와 그 집안의 (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감정적 유대에 우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사랑과 애정이라는 감정에 기반한 결혼이라는 고전적 정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즉 결혼을 하기 위해 양자가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호감을 만들어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중국사회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변화한 측면과 그렇지 않은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화전국부녀연합회의 머우홍(牟虹) 국제부 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잉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잉녀라는 용어는 한동안 미디어에서 자조적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그다지 좋지 않은 용어이다. 여성은 자신의 일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아름다움, 사랑,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을 하기에 늦어버린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바 있다.¹⁶⁾ 잉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

1919년 신청년 운동과 함께 ‘모범가정’에 대한 담론이 등장했었다. 당시 황아이(黃濤)는 모범가정이야말로 사회 진보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악한 사회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쁜 가정’과의 싸움이 필요하며 고생스럽게 개량하기보다는 새롭게 ‘모범가정’을 구축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다. 이때의 가정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국민국가 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가정이었다(사카모토 2006, 145-146). 현대 중국에서는 이와 달리 가족은 현재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단위로, 가족을 구성하는 기본적 제도로서의 결혼은 국가적 담론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현대 중국의 결혼은 산업화와 상품화 — 결혼 의례와 그에 동원되는 요소들의 상품화뿐 아니라 결혼 주체들의 상품화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 의 특성들을 점점 강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주도의 미디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결혼에 대한 강한 권유는 국가의 인구정책과 성비 불균형, 특히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미혼 남성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압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현대 중국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결혼이 어떤 사회문화적 위치를 차지하는가의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영역이 된다. 2001년 혼인법 개정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으로 보여지면서도 국가의 개입이 완전하게 소거된 것은 아닌 상태이다. 결혼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자발적 계약에 입각한 개인화된 영역으로 제도화되기는 했지만 결혼과 관련없는 아이의 출산과 돌봄은 국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혼을 개인의 계약 문

16) “APEC全國婦聯吹風會：沒有所謂的剩女”(2014년 11월 8일), <http://goo.gl/b1TrzJ>. (2014년 11월 10일 검색)

제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아이의 출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Davis 2014). 또한 개혁개방 이후 결혼이 산업화되고 의례의 과정뿐 아니라 결혼 상대 역시 ‘결혼 시장에서의 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애정에 기초한 두 남녀의 결합이라는 결혼이 중국에서는 단지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일 수 없으며 가족, 국가, 미디어 등의 다양한 영역들의 상호작용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광익 (2000). 『혁명과 개혁 속의 중국 농민』. 서울: 집문당.
- 김광익 (2010). “현대 중국농민의 일상세계: 공간구조와 관시(關係)의 확장.” 『비교 문화연구』. 16집. 2호, pp. 127-161.
- 김상민 (2013). “잉여미학: 뉴미디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한 노트.” 백옥인 편. 『속물과 잉여』, 서울: 지식공작소. pp. 73-121.
- 김형준 (2012). 『적도를 달리는 남자: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 서울: 이매진.
-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 바우만, 지그문트 (2003). 『리퀴드 러브』. 서울: 새물결.
- 볼로뉴, 장 클로드 (2006). 『독신의 수난사』. 서울: 이마고.
- 사카모토, 히로코 (2006).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인종, 신체, 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서울: 지식의 풍경.
- 송도영 (2004). 『인류학자 송도영의 서울읽기』. 서울: 소화.
- 쉬산빈 (2014). 『결혼을 허하노니 마오쩌둥을 외워라: 생활문서로 보는 중국백년』. 서울: 정은문고.
- 슈레더, 프레드 (2014). 『대중문화 5000년의 역사』. 서울: 시대의 창.
-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라 말인가: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파주: 푸른숲.
- 엄기호 (2014). 『단속사회: 설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 파주: 창비.
- 이용철 (2011). “상하이 화이트칼라 ‘바링허우(80後)’의 소비행위와 태도: 소비의 사회적 속성과 새로운 관계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 44권. 2호, pp. 139-177.
- 일루즈, 에바 (2010). 『감정자본주의: 자본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파주: 돌베개.
- 일루즈, 에바 (2014).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서울: 이학사.
- 장민걸 (2012). 『중국의 혼인과 가정』. 서울: 문사철.
- 조문영 (2012). “중첩된 시간성과 별이는 협상: 중국 동북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속물성에 대한 인류학적 변명.” 『한국문화인류학』. 45권. 2호, pp. 37-76.
- 최태섭 (2013). 『잉여사회: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 Cheung, Sidney (2006). "Visualizing Marriage in Hong Kong." *Visual Anthropology*. Vol. 19, pp. 21-37.
- Croll, Elizabeth (1981). *The Politics of Marriage in Contemporary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Deborah (2014). "Privatization of Marriage in Post-Socialist China." *Modern China*. Vol. 40. No. 6, pp. 551-577.
- Farrer, James (2002) *Opening Up: Youth Sex Culture and Market Reform in Shangha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ncher, Leta Hong (2014). *Leftover Women: The Resurgence of Gender Inequality in China*. London: Zed Books.
- Friedman, Sara (2006). *Intimate Politics: Marriage, the Market, and State Power in Southeastern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Li Shuzhuo, Zhang Qunlin, Yang Xueyan & Isabelle Attane (2010). "Male Singlehood, Poverty and Sexuality in Rural China: An Exploratory Survey." *Population*. Vol. 65. No. 4, pp. 679-693.
- Ma, Eric K. W. (2006). "Realizing Wedding Imaginations in South China." *Visual Anthropology*. Vol. 19, pp. 57-71.
- Yan, Yunxiang (2005). "The Individual and transformation of Bridewealth in Rural North China."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 11. No. 4, pp. 637-658.
- 蘇言·閔唯 (2010). 『上海太昂貴』.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 孫孟英 (2010). 『老上海的婚禮』.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孫沛東 (2012). "白髮相親: 上海相親角的擇偶行爲分析." 『南方人口』. 2期. 第27卷, pp. 30-36.
- 安治民 (2011). "我國城鄉光棍現象對比研究." 『武漢理工大學學報』. 24卷 5期, pp. 762-768.
- 喻丹美 (2012). "當代婚姻現狀分析." 『現代營銷』. 12期, pp. 144-145.
- 袁念琪 (2009). 『上海姻緣』.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李霞 (2010). 『娘家與婆家: 華北農村婦女的生活空間和後臺權力』.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陳伯海(主編) (2001). 『上海文化通史』.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 馮雪紅 (2013). 『嫁給誰: 新疆阿村維吾爾族婦女婚姻民族志』.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38 아태연구 제21권 제4호(2014)

胡申生·鄧偉志 (2007). 『上海婚俗』. 上海: 文匯出版社.

|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23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12월 09일 |

| 게재 확정일 : 2014년 12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4 (2014)

When Will You Get Married?: Marriage, Mate Selection and ‘Left-overs’ in Modern China

Lee, Eungchel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Duksung Women’s Univ.)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transformation of marriage in modern China and interpreted its socio-cultural meaning. In this modern society, marriage and wedding ceremonies are inescapable from industri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I considered this context to analyze some characteristics of wedding ritual, mate selection and social discourses about marriage in modern China.

In traditional China, marriage had been destined to accomplish the goal to reproduce and maintain male’s descent group. However, after 1949, the redefinition of marriage by the PRC banned arranged marriages and the State started to intervene to domestic affairs like any other aspects of everyday life. And moreover, the policy of reform and openness brought some social changes of marriage process and its socio-cultural meaning.

In post-socialist China, the State and the media urge people to marry not too late. In the area of popular culture we can find many examples telling the stories of marriage. Some parents of unmarried son or daughter attend blind date event for themselves in big cities like Beijing and Shanghai to search for their son - or daughter - in - law. In modern marriage process of China, the economic condition of spouse (and his/her family) is considered as very important thing to marry each other.

Some women, especially well-educated and with high incomes, are called as leftover women, which is a pejorative term made popular by the media. They are considered as people with deprivation and dangerous beings who can be harmful to society. However, this is problematic because it neglects some social contexts like population policy of the State, the sex ratio imbalance, and the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city and rural areas.

- Key words: Modern China, Marriage, 'Left-over women', Deprivation, Snobbism